

'안개 증시' 보름동안 순매수 종목 하락률 37% '개미'들 또 물먹었다

미수·신용 용자 급감 ... 빛내서 투자는 안한듯
최근 들어 저가 매수 노린 '몽치돈' 유입 늘어

최근 증권시장의 급락과정에서 저가매수에 나선 개인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폭락세로 돌변한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15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은 평균 36.85%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501.63에서 1,180.67로

21.37% 떨어진 것에 비해 무려 15%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평균 -11.05%와 -15.27%에 그쳐 개인들보다 훨씬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들이 같은 기간 순매도한 상위 20개 종목은 6.64% 하락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급락과정에서 매수한 종목이 폭락하고 매도한 종목은 덜 떨어져 시장의 흐름에 역행

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한 상위 20개 종목은 각각 38.07%와 26.77% 급락해 역시 개인들과 대조를 이뤘다.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GS건설, STX 팬오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기업은행, 한화, 동국제강 등 최근 증시급락을 주도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개인들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기, KT, 현대모비스, SK텔레콤, LG텔레콤, KT&G, LG데이콤, KTF, 오리온, 현대상선 등 하락률이 10% 미만인 데다 일부 종목이 폭락하고 매도한 종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증시'가 이어지면서 미수나 신용용자 등 이른바 빛내서 하는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19일 한국증권업협회와 대우증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신용용자 잔고는 16일 2조518억원을 기록,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전인 지난달 12일 2조 502억원에서 1천983억원 감소했다.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주식 등을 담보로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미수 잔고도 9월초 1천375억원에서 10월 8일 2천억원대로 늘어나다 이후 감소해 16일에는 1천77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의 주식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고객예탁금은 16일 기준 9조6천299억원으로 지난달 12일의 8조6천272억원에 비해 9천757억원 늘었다. 주식을 판 돈을 빼고 순수하게 새로 유입된 자금을 나타내는 순수예탁금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2조8천282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9월 16일(5천520억원), 10월 6일(5천406억원), 14일(5천399억원) 등에는 5천억원 이상의 몽치돈이 유입되기도 했다. 개인들이 빛내서 하는 투자를 줄이는 대신 자신의 보유 현금을 이용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해외펀드 3개 중 1개 1년 새 '반토막'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 89개 펀드가 손실률 50%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1년새 '반토막' 난 해외펀드들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16일 기준 순자산액 100억원, 설정기간 1년 이상인 해외주식형펀드 246개 중 1년 손실이 50%를 넘는 펀드가 89개로 36%를 차지, 3개 중 1개 이상이 반토막이 됐다. 또 해외펀드의 90%인 222개가 30% 이상 손실을 냈다.
해외펀드의 수익률 악화는 금융위기로 글로벌 증시의 급락 속에 중국·러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가 집중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작년

8월 설정된 중국펀드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주식형자(CLASS-A)'는 1년 수익률이 -72.30%까지 추락했으며 작년 9월 설정된 'JP모간러시아주식종류형자 1A'도 -65.71%로 곤두박질치는 등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순자산액 100억원, 설정기간 1년 이상인 301개 중 1년 손실률이 아직 50%를 넘는 경우는 없지만 펀드의 86%인 260개가 30% 이상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CS부울경우량기업플러스주식투자 1C 1'은 손실률이 48.50%로 가장 부진했다.



T-Live USIM 모바일뱅크

IBK기업은행은 현금카드 기능과 모바일뱅크를 결합한 SK텔레콤 T-Live USIM 모바일뱅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T-Live USIM 모바일뱅크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1천원이며, 기업은행은 이체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IBK기업은행은 현금카드 기능과 모바일뱅크를 결합한 SK텔레콤 T-Live USIM 모바일뱅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T-Live USIM 모바일뱅크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1천원이며, 기업은행은 이체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 장기 펀드 세제 지원 일문일답 주식형 3년간 월 50만원씩 불입 총 36만원 세제 혜택 받는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대책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의 투자자가 3년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총 3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계약을 추가로 3년간 연장한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문답자료 내용.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단 주식형펀드는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인 해당펀드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만 가능하다.
회사채형펀드는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만 해당된다. 두 펀드 모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누구나 가능한가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모두 해당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 기존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대상이 되나
▲현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3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소득부)부터 계산된다.

직불금 파장 여파 '농지은행' 뜬다

위탁만 양도세 혜택·직불금 수령도 문제 안돼
부채지주들 문의 전화 하루 100여통 쇄도
농민이 받아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을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층 전문직들이 부당 수령해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를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부채지주의 양도세 감면방법으로 '농지은행'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부채지주가 한국농촌공사에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가 60%로 종과되지 않고 9~36%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물론 직불금을 수령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장한다면 양도세를 최고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 크지만 경작이 불가능한 부채지주에게는 엄연한 불법인데다 적발시 사회적 비난과 처벌도 불가피해 합법적인 농지은행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공사에는 최근 들어 농지위탁과 관련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
19일 공사 관계자는 "직불금 문제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면서 하루 평균 50여통이던 농지위탁에 대한 문의전화량이 100여통으로 늘어났다"며 "정부 단속에 걸리기 전에 미리 농지위탁을 타진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쌀 직불금은 정당하게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하는 농업인이 수령해 가기 때문에 직불금 문제에도 거러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채지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양도세 감면효과 등으로 농지은행 위탁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다.
농촌공사 집계에 따르면 2005년 233명(면적 111만3천㎡)에 불과하던 위탁자수는 2006년 6천913명(3천373만2천㎡)에서 2007년 8천465명(4천274만㎡)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달 17일까지 7천984명(3천965만1천㎡)이 위탁을 했다.

로도복권 (제30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5 15 21 23 25 45	12	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587,643,250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1,610,554	28
3	5개 숫자 일치 1,465,672	1,177
4	4개 숫자 일치 58,085	59,400
5	3개 숫자 일치 5,000	937,908

팝콘복권 (제130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374486
2	1억	1조 450339
3	1천만	4조 881928
4	1백만	각조 75652
5	50만	각조 1605
6	2천	각조 88
		각조 90
		각조 10
		각조 8
		각조 2
		각조 3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엔프리카	엔프리카 화장품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1	010-3608-9913
월드뷰페	[연회부/예약실/조리부] 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1	062-251-7800
에스엠텍	안전관리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0/22	011-9047-5532
㈜카리아서치	경력직 경리	1000~1200	1000~1200	10/22	062-515-0026
광명직업전문학교	전자/통신/실내건축/전기공사/전산회계/훈련교사및 웹마스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2	062-529-3000
㈜신유	시퀀스제어, 전기 제어, PLC 경력직	고졸/경력2년	1800~2000	10/22	062-602-7486
기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	자동차영업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2	062-574-8011
한성MS	롯데마트 매장관리 및 상담원 사원(신한카드)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3	062-350-8860
남해철강	건설업 공무 및 관리부 경력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943-8676
㈜화인코리아	환경(수질관리), 생산(공무), 연구개발(식품) 정규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61-330-4523
㈜비스데코	제조업 경리회계 및 사무 경력자	고졸/경력2년	1600~1800	10/24	062-384-6859
광주영어마을	광주영어마을 영어유치원 교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2-385-0733
금야산업개발	자재입출고관리,화자관리,건축/건축사무기술사,건축.CAD	2800~3000	10/28	062-373-14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소비 위축·환율 상승에도 수입 승용차 판매 늘었다

지난달 6,800대 등록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 상승 등 좋지 않은 사업여건 속에서도 수입 승용차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 대수는 6천800대로 전체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의 9.5%를 차지했다. 환율등이 본격화되고 국내 자동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었던 지난달 소비자들은 거의 10대 중 1대 꼴로 수입 승용차를 샀던 셈이다. 이는 작년 9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와 비교하면 38.0%, 지난 8월보다는 12.2%씩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올해 1~9월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 수를 합치면 5만9천495대이며 그 점유율은 7.3%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에 5.8%였던 해외 브랜드의 국내 등록 승용차 점유율이 올들어 최근까지 1.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브랜드별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혼다가 18.0%로 가장 높았고 벤츠 15.3%, BMW 12.9%, 렉서스 9.0%, 폴크스바겐 7.4%, 아우디 6.8% 순이었다.

금융인 평균 월급 4,530,000원

전 산업 평균의 1.6배 국내 금융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53만원으로 전 산업평균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453만2천원으로 전 산업평균 282만3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은 277만2천원, 건설업은 273만1천원, 도·소매업은 288만3천원이었다.
금융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거치면서 생산성이 향상돼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금융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을 원화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영국은 742만2천원, 일본은 470만7천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지난해 금융산업 취업자는 81만명으로 전 산업 취업자의 3.5%를 차지했으며 작년 경제성장률 4.9% 가운데 금융산업이 0.69%포인트 기여했다.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006년 8천140만원으로 전년 7천760만원보다 증가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161)과 영국(160), 일본(154)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은 7.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05년 기준 부가가치 비중은 7.5%로 일본(6.3%)보다는 높았지만 영국(8.2%)과 미국(7.8%)에 비해서는 낮았다.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 공제를 연말정산분부터 재허용

지난해본 소득의 연말정산부터 금지됐던 신용카드 지출 의료비의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과다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려다도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아 중복공제를 막을 만한 실적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출될 2008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항목에서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협의를 진행중이다.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두 항목 모두로 공제신청이 가능해 일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봉급 생활자들에게 '연말 세(稅)테크' 필수항목이었다.
정부는 원래 2006년부터 중복공제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루다 중복공제를 불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분 소득부터는 이를 금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세법 시행령을 내년 초에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타임 할인제도